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정신건강증진사업 후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35)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 선생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영원한 생명, 새 세대의 생명

생명은 분명히 장래에 속한 것이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을, 그리고 그날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하였다(고후 5:1,4). 이것이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영생과 관계가 있다(고전 15:50~51). 영생은 구원과 우리 몸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 생명의 참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제 22:1~4).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고전 15:24~26).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광만 관계된 생명이 아니라 천인(全人)과 관계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이를 구속하실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요 3:36, 5:24). 그러나 이 영생의 전제를 소용하지는 못하였다. 생명은 장래의 일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다(요 10:10, 17:3).

영생의 의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다(요 3:3,5). 장차 올 새 세대의 생명은 신의 사역이다. 새 세대의 생명, 영광 나라의 생명을 바울은 묘사한다(고전 15:42~44). 이 신령한 몸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에 의해 활력을 받고 생기가 넘치며 권능을 부여 받은 몸이다(고후 5:5; 엡 1:13~14). 우리는 아직 이러한 유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부분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현재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그것이 곧 이 보증, 계약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곧 생명의 생령이요 영생인 것이다. 완전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거듭남은 장차 올 새 세대의 생명의 시작이며 참 생명이다. 즉 우리 안에 이미 이 천국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창조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을 것을 말해 준다(롬 8:22~23).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창조는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해방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첫 열매로 맛보게 하심으로 장차 임할 생명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약속과 소망의 복음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최고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만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장래에 임할 그 세대가 이미 이 세대 속으로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미래에 속한 영생이 오늘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이다(요 6:68). 그날에 우리의 몸을 구속시킬 하나님의 신의 그 변화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영생은 곧 매일 매일 이 세상 안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봉사하며, 천국의 생명을 맛보며 교제하는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에서 장래에 임할 새 세대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들이 약속이며 계약이며 보증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령님이시며 또한 장래에 있을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세대의 생명인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연령에 따라 조직된 23개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여든이 넘는 어르신들까지 매일 예배를 드린 후에 각각 집회로 모여 주일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충현의 만나> 교제를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는 선생님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섬김은 보혈의 흔적(갈 6:17)으로 가득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생들의 학교를 방문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선생님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입니다.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전해준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꾼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려진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특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주시십시오.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요 14:6)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충현교회 23개 교회학교 주일예배

부서	연령	시간	장소
영아부	0~2세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교육관 110호
유아부	3~4세	오전 10:50	제교육관 201호
유치부	5~6세	오전 10:50	제교육관 207호
유년부	초등1~2	오전 10:30	제교육관 307호
초등부	초등3~4	오전 10:30	제교육관 407호
소년부	초등5~6	오전 10:30	제교육관 507호
중등1부	중등1	오전 9:00	제교육관 301호
중등2부	중등2	오전 9:00	제교육관 401호
중등3부	중등3	오전 9:00	제교육관 501호
고등부	고등1~2, 3	오전 11:00	제교육관 4층
대학부	고등졸업생~27세	(토) 오후 2:00	제교육관 4층
청년부	19~34세	(토) 오후 5:30	제교육관 4층
청년2부	35~39세	오후 12:15	제교육관 2층
장년부	40~49세	오후 12:30	제교육관 507호
장년2부	50~59세	오후 12:30	제교육관 407호
장년3부	60~69세	오후 12:30	제교육관 307호
장년4부	70~75세	오후 12:30	제교육관 301호
성인부	76세~	오후 12:15	갈릴리움
새가족	지역장애인 5세~	오전 11:00	복지관 지8하층
애디부	청각장애인 7세~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교육관 1층
타이포	0~6세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층
세이츠안유목	신인교인	오후 12:10	비니나루
국내외국인선교부	외국인 근로자	오전 11:00	아민룸

A BELIEVER'S FAMILY

"Now a certain woman of the wives of the sons of the prophets cried out to El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your servant feared the LORD; and the creditor has come to take my two children to be his slaves.'" (2Kgs. 4:1)

And she said, "Your maidservant has nothing in the house except a jar of oil." ... (2Kgs. 4:2)

And the oil stopped. (2Kgs. 4:3)

(2Kings 4:1-7)

A mother's role is very important in the family. Who can number her responsibilities? When God made woman, He gave her the tremendous job of bringing children into the world. "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pain in childbirth, In pain you will bring forth children; Yet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Gen. 3:16). Mothers around the world are called to love their husbands, nurture their children, and manage their homes. The daily detail of such work is truly beyond measure. Here,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a woman who has not only lost her husband, but is also about to lose her children. Her already many duties have now increased and her burdens have become much heavier. Let's look at how she handled this dire situation.

This mother knew where to go in the time of her need. Today's Bible passage tells us, "Now a certain woman of the wives of the sons of the prophets cried out to El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your servant feared the Lord; and the creditor has come to take my two children to be his slaves'" (2Kgs. 4:1). This woman came from a godly family. She was the wife of a servant of God. Her husband studied under Elisha, and did not have money. He died early. Even though she was left with two sons and a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she had faith, not fear. The creditors wanted her sons as payment for her family's debt. As a believer, she went quickly to seek God's wisdom and help through Elisha. The blessed are the ones who know where to go when their family is in need. Whom do you turn to in times of trouble?

This mother found the answer to her need was right at home. Today's Bible passage says, "Elisha said to her, 'What shall I do for you? Tell me, what do you have in the house?' And she said, 'Your maidservant has nothing in the house except a jar of oil.'" Then he said, 'Go, borrow vessels at large for yourself from all your neighbors, even empty vessels; do not get a few. And you shall go in and shut the door behind you and your sons, and pour out into all these vessels, and you shall set aside what is full'" (2Kgs. 4:2-4). Elisha considered her problem and asked her a very searching question, "What do you have in the house?"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for all of us. Most people look for what they don't have, not realizing what they actually do have, especially at home. It'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maintain a positive outlook. This woman acknowledged that she had a jar of oil. What can you acknowledge? Too often I hear people talking

about what they don't have, like the newest televisions, computers, cell-phones, or whatever. As believers, we really need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what we do have. Honestly, when you find out what you really do have, that is your turning poin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counted your blessings instead of complaining? When are you going to rediscover the blessings God has already given to you? The answer for lifting your burden may be right at home. Jesus taught us to pra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Mt. 6:11). Do you actually pray to the Lord for daily bread or do you end up making, not millionaire, but billionaire requests?

This mother found that the possibilities are unlimited when you allow God to use what you have. Today's Bible passage says, "So she went from him and shut the door behind her and her sons; they were bringing the vessels to her and she poured, when the vessels were full, she said to her son, 'Bring me another vessel.'" And he said to her, 'There is not one vessel more.'" And the oil stopped. Then she came and told the man of God. And he said, 'Go, sell the oil and pay your debt, and you and your sons can live on the rest'" (2Kgs. 4:5-7). If this mother did not have faith, she would never have closed the door. She asked her two sons to help her, and they must have believed because they acted. They borrowed as many vessels as they could. Involving her sons was an act of faith. She sent them out believing big. Elisha told her not to borrow just a few vessels, and she communicated this to her sons and her sons listened. Closing the door had to be a thrilling moment! God took what she had and multiplied it, filling all the vessels brought to her. She kept pouring and pouring and pouring. Think about what God will do with what you have! He took a boy's lunch of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fed over five thousand people. He used Moses' rod to part the Red Sea, along with many other miracles. He used David's sling-shot to bring down Goliath. Whatever you have is more than enough for God to use my friend. Our God has boundless resources; the only limit is in us. Our asking, thinking, and praying are too small and negative, and our expressions are way too limited.

My dear friends,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hen you and your house are blessed. As a believer, you should know where to go when trouble comes, you should use what you have in your house, and you should believe God is unlimited in blessing you. 🙏

신자의 가정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빗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빗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1~7)



김성원 목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책임을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자녀를 낳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 3:16).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보다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은 정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는 남편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아들마저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미 주어진 의무들이 이제는 감절로 불어났고 그녀의 집은 한층 더 버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험거운 상황을 헤쳐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절실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알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빗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왕하 4:1). 이 여인은 경건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배웠지만 모든 재산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과 험거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빚의 대가로 두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녀가 필요한 대답은 그녀의 집에서 찾는다

이 어머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자신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왕하 4:2~4). 엘리사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심숙고한 후 매우 냉철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가정에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 예를 들어 최신 TV,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해 말하는 것

을 들곤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전환점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본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집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부족해서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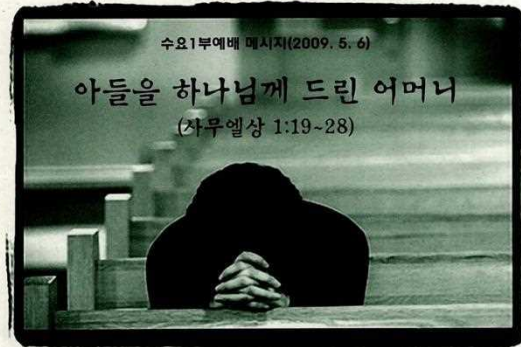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함을 체험한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허락만 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우르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빗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왕하 4:5~7). 만약 이 어머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문을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두 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청종했습니다. 문을 닫은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있는 것을 취하셨고 그녀에게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우심으로 몇 배로 불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붓고, 또 붓고, 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물고기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뿔들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유일한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간구, 생각, 기도가 너무나 작고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표현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복 받은 것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5. 6)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자루엘상 1:19-28)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관한 이야기다. 보통 사람들은 한나를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사무엘상·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을 낳기까지 거의 30년의 삶은 괴로웠고 슬펐다(삼상 1:7).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지만 그녀의 임신을 막으셨다(삼상 1:5).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던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한나는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삼상 1:10).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삼상 1:11)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의 삶은 무척이나 괴로웠다. 물론 그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일갈한 음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삼상 1:12-13). 그녀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던 것이다(삼상 1:11). 간절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엘리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니"(삼상 1:17).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셨다.

약속을 지키는 여인이었다.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에 한나는 즉시로 고백하였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이다"(삼상 1:18). 사실 이 고백을 할 당시 한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미 아들을 낳을 줄 확신하며 엘리제사장에게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였다(삼상 1:19).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나타났으며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다(삼상 1:20). 한나는 서원한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았으며 젖을 떼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삼상 1:21-25). 한나는 엘리제사장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삼상 1:26-28). 젖을 갓 떼 아이를 성전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경배드리는 여인이었다. 아들을 성전에 맡기는 한나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그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삼상 1:28). 어렵게 얻은 아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그녀에게서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 경배를 드렸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삼상 2:1-2). 이러한 한나의 경배와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되었다(삼상 2:19-20). 변함없는 믿음으로 경배드리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삼상 2:21).

한나의 가정은 위태로웠다. 한나의 현실은 매우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이행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었다. 위기에 봉착한 한 가정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듯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 약한 영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깨지기 일보직전의 가정은 예수님보다 나아가야 한다(마 11:28).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강해 70

재난의 징조 (13:3-13)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 그만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막 13:1-2)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매우 놀랐다.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감람산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 곁으로 갔다(막 13:3).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다(막 1:16,19-20).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막 13:4).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었기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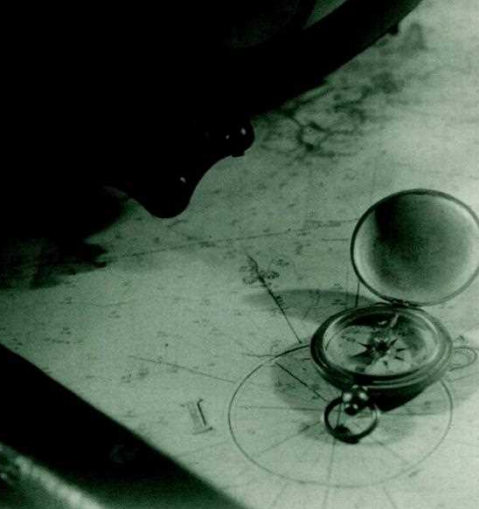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막 13:5-6). 예수님 당시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국을 잃은 유대인들을 선통하여 저항운동을 하거나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다(행 8:10).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 당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막 13:7-8). 이러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었다(사 19:2 ; 렬 4:31).

아무리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

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강하지 않다. 예수님의 삼 년 사역기간 동안 강하셨던 때가 있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군사이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막 13:9). 분명히 악한 사탄은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며 핍박할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다(갈 1:13). 바울도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빌 3:6)하였지만 거듭난 후 그도 역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다(고후 11:24-26).

지금 우리의 초점은 성전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또 복음이 먼저 만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막 13:10).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복음과 복음전파에 초점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재난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괜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살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막 13:11).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이다(창 50:20). 복음을 깨달아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은 시작될 것이다(막 13:12 ; 마 7:6).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막 13:13).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자. 영원토록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 품이다. 아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4일(월) ~ 5월 14일(목)	18교구 1팀	김성현
5월 7일(목) ~ 5월 14일(목)	7교구 1팀	송한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30일(목) ~ 5월 7일(목)	13교구 1팀	최현구
4월 30일(목) ~ 5월 7일(목)	16교구 1팀	구송희

2009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삼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주셨다. 교회학교 교사 와 대학부 조장, 학교에서는 학업을 성기를 리더, 작년 11월 이 모든 일을 맡게 되면서 주님 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분명 주님이 하실 것이라 믿었지만 나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였다. 내가 기도하던 것과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러던 중 대학부에서 선교광고를 접한 뒤 나의 마음속에는 이번 겨울방학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꼭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교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확신을 가짐과 자기부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로 구하고 노력하였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참 사랑도 없고 이기적인 아이인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도저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 마음을 제게 달라고 기도할 뿐이었다. '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신 건가요?'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다. 복음을 전하던 8박 9일,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셨다.

처음 이를 동안은 선교를 왔으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나의 의지와 열정에 가득 찬 사역을 하였다. 그날 밤 선교조차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선교지의 집집마다 사할 모양의 불상이 많이 놓여있었고, 어딜 가나 주향재 승복을 입은 승려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같이 사역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이 안타까움 역시 내가 하려는 선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지에 적힌 몇 문장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만한 영혼들은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세뉘라는 자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을 또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본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 교회도 한 군데 있었는데 어린이들만이 주일예배에 나온다고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지금은 비어있는 그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선교지를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엄청난 수의 단기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나라이다. 이제는 다른 민족을 통한 복음전파와 더불어 믿음 좋은 주님의 일꾼이 양성되어 이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선포하며 난 참 기쁘고 감사했다. 처음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지만 선교 사역 가운데 나에게 선교지의 영혼을 품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 새 힘 주시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다. 나와 만난 영혼 중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영혼들을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시어 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길 소망한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완전한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신 이번 선교, 나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복음의 빛진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한다.

김진희(대학부 3팀)



정지기칼럼

주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내게 임했네

저는 만 삼십 일 년 전에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같이 살아서 좋다는 두 가지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기적이 일어나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생명까지도 연장을 받아 소망이 없던 제게 소망이 생기고 베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의 하는 일이 무탈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며 생활도 윤택해지고 근심걱정 없이 주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지만 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주님이 붙들어 일꾼으로 사용하시면 그것도 주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기적인 제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시 말씀을 듣는 중 흐르는 눈물을 주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알고 살던 제게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곧 은혜이고 복이며 그 자체가 십자가임이 순간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저는 속으로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도 간곡하게 외친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토록 간절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찬송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가슴이 뭉클 뒹였습니

다. 먼지와 같은 내게, 마른 일처러 만지면 부수질 형태조차도 없어질 내게도 정말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세월을 돌리켜 보면 저 지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인 내게 정말 주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천국에 나의 거처가 다 지어질 때까지 두 세대를 바라보며 살려 합니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체이고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합니다. 힘이 들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흐른 앞에서만 살려합니다. 사랑을 기쁘게 하길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복음만 전하며 살려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게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복수
(권사, 11교구)

간증과 나눔

사랑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주워 온 제자 령아예요. 매년 “너는 원래 우리 반이 아니었어. 주워왔잖나.”라며 놀리곤 하시는데 역시 주워왔잖나. 잘하신 것 같죠? 선생님을 알게 된지도 벌써 9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생각해 보니 제가 고등부 때 마음도 잘 열리지 않고 말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움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던 선생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일에 지나가다 잠깐 뵈면 “선생님,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철없이 말해도 가만에서 주섬주섬 먹을 것을 꺼내어 주시는 선생님. 10년도 넘은 제자들의 주소와 파일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시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선생님. “선생님! 교사 계속 하실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라는 물음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교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답하신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라는 직분이 참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한명 한명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을 보면 힘들다는 핑계로 내년부터 교사를 내려놓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제 철없는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선생님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교사에 대한 열심을 붙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시길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영아(대학부)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목숨에 대해 알려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말씀구렁이에 말도 잘 듣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선생님들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와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중등2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김아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떠돌고 장난을 쳐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면려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등2부도 비록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과 좋은 기억들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의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인태원(중등2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선생님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십년 전 고등부에서 선생님과 학생으로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고등부 선생님과 교사양성부 실습생으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십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만난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등부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항상 듣고 다니시는 파일에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고등부에서 만났던 학생부터 현재 막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이 다 들어있고 지금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 생생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때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꺼내어 저를 놀라게 하는 분이십니다. 학생 한명 한명을 마치 본인의 자식처럼 여기시며 항상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모님같은 선생님입니다.

철없던 고등학교 1학년, 분반공부에 들어가기 싫어서 깃까지 핏게를 대며 도망다녔던 저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분이신 것을 고등부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십년 전 선생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망다녀서 분반공부 시간에 혼자 자라 지기게 해 드린 거 죄송해요. 선생님을 통해 올바른 교사와 교사를 알게 되었고 학생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그들을 알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윤예정(교사, 고등부)

햇살이 눈부신 초등부 예배실에 아이들이 앉아 재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준비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면 재잘거리던 아이들이 숙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초등부는 예배와 2부 순서, 그리고 분반공부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 중 분반공부 시간은 목사님의 설교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배우고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다. 분반공부는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처음 도입 단계 때에는 지난 일 주일 간의 삶을 나누고 나서 오는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 공부한다. 이어서 배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다짐하고 다짐하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뒤 기도를 하고 마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부 교재인 <종영의 나라>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과 이로 인한 우리들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권능을 통한 복음전파의 내용이 잘 나와 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항상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고 분반공부 시간에는 이 내용을 아이들과 나누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분반공부 시간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짧다. 따르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한 쪽에서 다른 아이가 생동감 있는 질문을 한다. 질문에 대답해 주면 다른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후에 성경말씀을 제대로 나누기가 정말 힘들다.

처음 초등부 교사를 시작했을 때 복음에 대해 차분히 아이들과 나누고 나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실제 막지 못할 분반공부 분위기에 놀랐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음



있어버린 터라 잠시 청찬만 해 주고 자리에 앉혔는데, 예배드리는 동안 지난 주에 아이들과 작성했던 것이 생각나 참으로 부끄러웠다.

“성전식이 무엇일까요?”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며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이 모습을 보며 비록 내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며 진정된 주님의 복음을 아이들 심령에 새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민숙(교사, 초등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금번 가족연합예배는 특별한 성찬예식을 실시함으로 온 가족이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귀한 자리에 저의 가족 또한 본담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 고난주간 즈음 집사람이 아파서 교회학교 부서와 교구의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일에 힘쓰던 아내였습니니다. 중학생인 두 딸들에게 엄마가 영육이 연합하여 지체있으니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고난주간 새벽에 일어나서 교구식구들과 함께 새벽예배에 한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와서 출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경보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심방 오셔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사 가운데 "내가 연합하듯 더욱 귀히 여기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평소에도 교회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였건만 그동안 가사안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가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우리가 연합할 때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힘든 시기였지만

마시며 기념하는 은혜의 자리에 가족연합예배로 온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날마다 속 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내와 두 딸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삼아주시 것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돌이켜 봅니다. 내가 연합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지켜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최영인(안수집사, 10교구)

새가족양육부 4월 수료자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 ▶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임을 깨달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어 보잘 것 없는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이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일을 꼭 지키는 자녀가 되었습니니다. (채은미)
- ▶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아플 때 주님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최신훈)
- ▶ 내 맘속에 간혀 있던 나에게 교회의 의미를 깨달고 교우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뜻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정선애)
- ▶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지현)
- ▶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기적이고 오만했습니다. 방향 끝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며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시험받지 않길 기도합니다. 성경말씀을 따르고 기도에 힘쓰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영선)
- ▶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주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김영선)
- ▶ 십자가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겸손해지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항상 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이 생깁니다. (구영애)
- ▶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박성호)
- ▶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덕례)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97	김민	7	장년1부	금옥연(7)
698	권오근	2	장년1부	임명희(14)
699	신탄파	25	외선부	이남숙(12)
700	침계	25	외선부	이남숙(12)
701	바토	25	외선부	장응숙(21)
702	정세라	2	중등1부	장금지(2)
703	원병희	20	청년2부	왕수정(2)
704	김주철	8	중등1부	안화순(2)
705	이현민	9	청년2부	정재석(20)
706	조선혜	9	청년2부	정재석(20)
707	장유식	2	청년2부	장동주(2)
708	박금주	20	청년2부	김연희(17)
709	서무나	19	청년2부	김미연(13)
710	송재하	19	청년3부	송문희(10)
711	최종용	20	청년1부	서은숙(17)
712	양미숙	20	청년2부	양미옥(18)
713	최영덕	9	소망부	구정희(9)
714	이재호	2	청년2부	임일영(2)
715	알렉산	12	대학부	이민순(1)
716	알렉산	23	청년1부	김향신(2)
717	이치호	1	고등부	이은순(2)
718	송영주	14	청년1부	송혜숙(20)
719	송재식	10	고등부	함화자(10)
720	심수학	9	고등부	왕신자(9)
721	신지현	18	고등부	원종근(18)
722	유송희	21	청년2부	유송희(2)
723	최미자	14	청년2부	이창순(14)
724	한혜진	12	청년1부	
725	박정훈	11	청년1부	박재림(11)
726	박훈기	1	청년2부	
727	안정희	1	청년2부	
728	이현화	19	청년2부	

* 혼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담 203호 새가족등록부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 1. 권사회 찬양연습 일시: 매주일(6월 7일까지) 15:00 장소: 갈릴릴루
- 2. 집사회 찬양연습 일시: 매주일(6월 14일까지)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 3. 집사회 2차회(2·6·10·14·18·22교구) 기도회 일시: 12월(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나나홀

발세

- 1. 이장남 배(이현영 성도의 부친·최정수 성도의 장인, 17교구 기거구역) / 4월 29일 밤세, 5월 1일 장례

결혼

- 1. 안양수 군(안종산 씨·김순일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이영희 양(이영철 씨·임영민 씨의 딸) / 5월 16일(토) 12:00, 남사물대 예배당
- 2. 이재현 군(이영민 씨·김상수 성도의 아들, 10교구)과 김민희 양(강만종 씨·김성수 씨의 딸, 10교구) / 5월 16일(토) 13:00, 가평 병영예식장 2층

2009년 제7차 CMTC (교육과정·3주단, 장소: 갈릴릴루)

●CMTC(선교인)●

시 간	5월 10일(오늘)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화를 통한 침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초
시 간	5월 17일(다음 주일)
18:15~19:50	학무훈련

3교구 공동례 전도집회	일 시: 5월 10일(오늘) 14:00	장 소: 제1교육관 207호
20교구 공동례 전도집회	일 시: 5월 10일(오늘) 14:00	장 소: 배나나홀
2교구 영성훈련	일 시: 5월 12일(화) 10:00	장 소: 춘천기도원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 시: 여전도회 5월 13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5월 16일(토) 14:00	장 소: 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회, 2지회-307회, 3지회-401회, 4지회-407회		
16교구 영성훈련	일 시: 5월 14일(목) 10:00	장 소: 춘천기도원

2009 의전선교의 날

일 시: 5월 17일(다음 주일) 9:00~16:00 장 소: 이현물, 분당 임마넬 건강장전 차량 대 상: 국내 외국인 근로자

전도 회장단 영성훈련(회장·부회장·전도부장)

일 시: 5월 17일·31일(주일) 15:10~16:00 장 소: 제1교육관 407호

9교구 영성훈련

일 시: 5월 16일(토) 9:00 장 소: 배나나홀

1교구 총회전 전도집회

일 시: 5월 17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제1교육관 201호

5교구 공동례 전도집회

일 시: 5월 17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분당 112호

13교구 공동례 전도집회

일 시: 5월 17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복자관 지하층

선교인에 헌신

일 시: 매주일 15:00 장 소: 제1교육관 405호(내용물) 501호(잔보디아) 505호(물품) 504호(유크리아나) 507호(배나나) 508호(인도) 510호(베트남)

새벽기도회 (5/11~5/17)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황의만	강호성/장금수	김근영/강찬석	박준식/박훈근	최철진/이병근	정민권/한성임	이광원/임태두
설 교 본 문	막 13:24-27	골 2:21-32	골 3:1-13	골 3:14-21	골 1:1-15	골 2:1-5	골 2:6-16

예배 담당 (5/13-5/17)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5/13	수요 I 수요 II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제 28-11) 이성진 목사 믿음이 이기대(행 18:24-28) 이순식 목사	이성진 박예희 안일환 박효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호산나 찬양대)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이도(실로암 찬양대)
5/15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김필경	예루살렘 찬양대 / 초동부 찬양단 / 피아노 5중주
5/17	주일 I	신자의 가정(왕하 4:1-7) 김장성 목사	이재형 이세영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신자의 가정(왕하 4:1-7) 이희석 목사	정종신 김진국	주 예수 대문 밖에 외 / 소르노 조혜민(임마넬 찬양대 솔로리스트)
	주일 III	신자의 가정(왕하 4:1-7) 김성관 목사	양재욱 안현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할렘루아 오케스트라
	주일 IV	신자의 가정(왕하 4:1-7) 장 훈 목사	양태선 정선현	내 평생에 가는 길 외 / 바이올린 입지희(아베 오케스트라)
	주일 V	신자의 가정(왕하 4:1-7) 유현철 목사	이성진 이 훈	구주 예수의 지향 외 / 바이올린 전혜민(베를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아나와 남편(렘 3:1-7) 김성관 목사	박용훈 권원섭	할렘루아 여성찬양단 / 베를 찬양대 / 초동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공동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침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찬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찬양	저녁 11:00	금요찬양회 부동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로 1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well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201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동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동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동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동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동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1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 리 리
사 랑 부	오후 12:1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평일) 오후 1:00(주일)	제2교육관 1층
타 가 부	(수) 오후 8:30-8:50(목) (금) 제7교구(목) 9:30	선교관 1층
새가족확장부	오후 12:10	배 나 나 홀
국내외친구전부	오전 11:00	아 뎀 홀
영유초등도시전	오전 8:30~오후 4:30	제2교육관 7층
춘천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영교육	주간교육	춘천복자관

5월 총회 기도의 창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1.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2.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되어 주소서.
- 3.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 주소서.
- 4. 모든 예배와 찬양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부터 천국일군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5. 1·1·1 전도인 133과 총회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6.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2)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 13:4)가 되게 하소서.
- 7.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수사범 찬양대(제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8. 총회의 재단(유지·통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남급심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경(골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외사는 길



심 기 는 분 들

■ 위임목사 김성관

이종석 5월 10일	이종석 5월 17일	이종석 5월 24일	이종석 5월 31일	이종석 6월 7일	이종석 6월 14일	이종석 6월 21일	이종석 6월 28일	이종석 7월 5일	이종석 7월 12일	이종석 7월 19일	이종석 7월 26일	이종석 8월 2일	이종석 8월 9일	이종석 8월 16일	이종석 8월 23일	이종석 8월 30일	이종석 9월 6일	이종석 9월 13일	이종석 9월 20일	이종석 9월 27일	이종석 10월 4일	이종석 10월 11일	이종석 10월 18일	이종석 10월 25일	이종석 11월 1일	이종석 11월 8일	이종석 11월 15일	이종석 11월 22일	이종석 11월 29일	이종석 12월 6일	이종석 12월 13일	이종석 12월 20일	이종석 12월 27일	이종석 1월 3일	이종석 1월 10일	이종석 1월 17일	이종석 1월 24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7일	이종석 2월 14일	이종석 2월 21일	이종석 2월 28일	이종석 3월 5일	이종석 3월 12일	이종석 3월 19일	이종석 3월 26일	이종석 4월 2일	이종석 4월 9일	이종석 4월 16일	이종석 4월 23일	이종석 4월 30일	이종석 5월 6일	이종석 5월 13일	이종석 5월 20일	이종석 5월 27일	이종석 6월 3일	이종석 6월 10일	이종석 6월 17일	이종석 6월 24일	이종석 6월 31일	이종석 7월 7일	이종석 7월 14일	이종석 7월 21일	이종석 7월 28일	이종석 8월 4일	이종석 8월 11일	이종석 8월 18일	이종석 8월 25일	이종석 8월 31일	이종석 9월 7일	이종석 9월 14일	이종석 9월 21일	이종석 9월 28일	이종석 10월 5일	이종석 10월 12일	이종석 10월 19일	이종석 10월 26일	이종석 11월 2일	이종석 11월 9일	이종석 11월 16일	이종석 11월 23일	이종석 11월 30일	이종석 12월 7일	이종석 12월 14일	이종석 12월 21일	이종석 12월 28일	이종석 1월 4일	이종석 1월 11일	이종석 1월 18일	이종석 1월 25일	이종석 1월 31일	이종석 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